

아시아교육연구 20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1, pp. 95-117.

<https://doi.org/10.15753/aje.2019.03.20.1.95>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의 관계 분석

이현경(李玄慶)*
김정민(金廷珉)**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및 또래애착과 대학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 Youth Panel Survey)의 중1 패널 자료를 토대로 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차년도 자료와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1,308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부모긍정양육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고,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더불어 진로정체감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및 또래애착과 대학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아지며, 부모의 긍정양육 태도와 청소년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여줄수록, 그리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청소년들은 진로정체감을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 대학만족도

*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선진화센터 연구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및 교육대학원 강사

1. 서론

청소년기 올바른 진로탐색과 개발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진로탐색과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자신감과 동기유발에도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며(Garcia, Restubog, Toledano, Tolentino, & Rafferty, 2011; Ginevra, Nota, & Ferrari, 2015) 진로결정 효능감 또한 강화할 수 있다(Restubog, Florentino, & Garcia, 2010).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한 자녀가 또래와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기초가 되며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7; 노미나, 권연희, 2010; 박민하, 문재우, 2016; Bornstein, 2002).

또래는 동료이자 경쟁자이며 지지와 격려,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존재로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장영애, 엄윤경, 2009). 이러한 또래애착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것과 같이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경우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장인실, 장석진, 2012).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 거부적인 것과 같이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또래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utallaz & Heflin, 1990).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진로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또래애착이 잘 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고(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이는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수준이 높아지면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적성과 진로에 대한 숙고와 통찰,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수정, 박정령, 김정예, 2017).

청소년기에는 부모,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외에도 내적으로 충분한 자아성찰 및 진로탐색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서 진로정체감 형성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확립된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서유란, 이상희, 2012). 청소년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인숙, 손민정, 박혜경, 2017). 청소년기에는 진로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직업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Super, Savickas, & Super, 1996). 즉 중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을 고려한 적절한 진로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재성, 2010; 조영아, 정철영, 2013; 최윤정, 김지은, 2012).

청소년기에 진로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 대학 진학 시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여 그

에 적합한 대학교육이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취업이나 직장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 전공을 결정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대학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정경아, 조지현, 2015)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에서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김인숙, 손민정, 박혜경, 2017) 대학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고 직장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정주영, 2013).

청소년기 진로탐색과 결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대학생 시기 진로결정 및 진로정체감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박수복, 김희수, 2018; 박연옥, 박수진, 허정, 2017; 유순규, 김은주, 2016; 오충광, 2016; Chung, 2002; Stringer & Kerpelman, 2010). 또한 대학 진학 직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결정 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개인, 가정, 학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신희경, 김우영, 2005)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요인과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올바른 진로정체감 형성은 대학 진학 후 대학생활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이 대학 진학 후에 대학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에서의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에서의 또래관계와 진로정체감 및 대학만족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탐색 및 결정의 시기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애착 및 진로정체감과 이들의 대학 진학 후 대학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및 대학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부모긍정양육과 또래애착

부모는 자녀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와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갈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김영숙, 조한익, 2017).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애정, 온정, 허용, 수용, 거부, 통제, 학대, 방임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내외적 태도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행동 경향성을 의미한다(김신정, 김영희, 2007; 허묘연, 1999; Becker, 1964).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 등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모와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하여 또래와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 Engels, Dekovic, & Meeus, 2002).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애로움과 통제의 기준에 따라 자애로움도 높고 통제도 높은 권위적인 유형, 자애로움이 낮고 통제가 높은 독재적인 유형, 자애로움이 높고 통제가 낮은 허용적인 유형, 자애로움도 낮고 통제도 낮은 무관심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Baumrind, 1991). Safdar와 Zahrah(2016)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신뢰의 40.7%를 설명할 정도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관련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이나 신뢰감을 촉진하는 반면 허용적인 양육태도와 독재적인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aralampous, Demetriou, Tricha, Ioannou, Georgiou, Nikiforou, & Stavrinides, 2018).

또래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또래애착이라고 하며 이는 또래 간에 신뢰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의미한다(Freeman & Brown, 2001).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유아나 아동기에 부모자녀 관계에만 의존하던 경향성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관계가 보다 강조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다(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우울증상,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자녀 대화수준, 가족 갈등 등이 있으며(김은경, 김홍숙, 김순규, 2013; 변해원, 2017; Millings, Buck, Montgomery, Spears, & Stallad, 2012)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휴대폰 의존, 인터넷 게임중독,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자기조절학습능력, 학교생활 적응(고종민, 명향란, 안권순, 2017; 박미려, 양은주, 2017; 송미령, 김성영, 2012; 이현주, 권수정, 2013;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등 청소년기의 적응과 부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청소년 부모긍정양육과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Holland, Daninger, & Power, 1980). 진로정체감은 개인특성, 부모관여방식, 부모의 지지 및 경제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김인숙, 손민정, 박혜경, 2017) 청소년기 진로개발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중요시 된다(Blustein, 2011; Ginervra, Nota, & Ferrari, 2015; Kenny & Medvide, 2013).

부모는 진로선택과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원덕, 안귀여루, 2015; Sovet & Metz, 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의 보고

서에 따르면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부모님 및 친인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정보도 부모님 및 가족·친지와의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보, 유한구, 장현진, 방혜진, 신선미, 2014). 부모와 진로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져 직업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고(이응택, 최재혁, 2017) 부모의 관심 및 대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정주영, 2010). 부모의 진로 관련 지지행동이 많을수록 진로정체감 발달이 촉진되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관여, 무관심은 진로정체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이현주, 2010; Dietrich & Kracke, 2009).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 2018), 부모가 자녀에게 방임의 태도를 덜 보일수록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다(박미려, 양은주, 2017). 특히 고등학생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하거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고(김희수, 2005),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이형실, 2015).

3. 청소년 또래애착과 진로정체감

또래애착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원만한 또래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적절한 사회 기술 능력, 이타적인 성향, 조망수용 기술과 사회적 적응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채선화, 김진숙, 2015; McGuire & Weisz, 1982).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행복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인다(Laursen, Furman, & Mooney, 2006; Wilkinson, 2009).

이러한 또래애착은 진로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독립성을 갖게 되고 부모보다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 친구들과 진로정보를 공유하면서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킨다(권성애, 박용순, 송진영, 2014; 권수정, 박정령, 김정애, 2017; 박미려, 양은주, 2017). 고등학교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반면 친구 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김희자, 2008)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소년 후기에 또래와 높은 수준의 애착 수준을 보이는 학생은 환경을 더 열심히 탐색하고 직업 결정에 있어서도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Felsman & Blustein, 1999). 또한 또래와 안정된 애착을 보일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진로결정을 위한 주체성, 독립성 그리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으며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이경희, 윤미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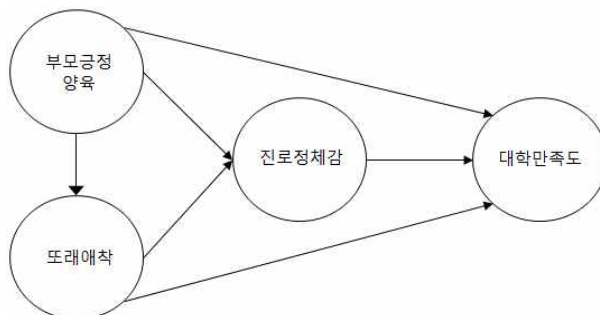
4. 청소년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

청소년기에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은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준비에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기 진로정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김성경, 2015). 청소년 진로정체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직업계획, 전공계획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최인화, 1998)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윤영란, 2009; 이상인, 2001).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공인규, 2008).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라 대학만족도와 대학적응도도 달라질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대학 생활에서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수업 만족도 등을 높이고(김인숙, 손민정, 박혜경, 2017)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이지원, 이기학, 2017). 또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대학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에 있는 학생은 대학적응 수준이 높고 진로정체감 유예와 혼미 지위에 있는 학생은 대학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오보영, 이상희, 2013).

대학 입학 전에 직업에 대한 결정을 이미 했거나 진로선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압박감을 대학과 결합하여 연상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을 자신의 직업계획 수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으로 생각하여 대학생활에 비교적 만족할 수 있다(허귀선, 1985; Marcia, 1964). 또한 현재 소속된 학과가 미래의 자신의 일과 일치할 때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며 개인의 흥미나 적성과 같은 특성이 전공과 적절하게 부합할 때 전공학과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에 확신을 갖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진로정체감 확립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Erikson, 1993).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 및 대학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중1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 수준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1 패널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차년도 자료와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측치는 없었으며 7차년도에 대학생 총 1,30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609명(46.6%)이었고 여자는 699명(53.4%)이었다. 학교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명(1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97명(7.4%), 경상남도 94명(7.2%), 서울특별시 93명(7.1%), 대구광역시 89명(6.8%), 충청북도 84명(6.4%), 부산광역시 83명(6.3%), 인천광역시 75명(5.8%), 제주특별자치도 74명(5.7%), 전라북도 72명(5.5%), 울산광역시 64명(4.9%), 전라남도 64명(4.9%), 강원도 62명(4.7%), 대전광역시 52명(4.0%), 충청남도 52명(4.0%), 광주광역시 50명(3.8%), 세종특별자치시 1명(0.1%) 순 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긍정양육

부모긍정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KCYPS의 양육방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허묘연(1999)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근거한 것으로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의 8개 하위 요인의 29개 문항 중 긍정적 양육태도 측정문항에 해당하는 감독 3개 문항, 애정 4개 문항, 합리적 설명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긍정양육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부모긍정양육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감독 .793, 애정 .800, 합리적 설명 .817, 전체 .867이었다(<표 1> 참조).

〈표 1〉 부모긍정양육 검사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	문항수	신뢰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3	.793
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4	.800
합리적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3	.817
			.867

2) 또래애착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KCYPS의 또래애착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번안한 황미경(2010)의 척도를 재구성한 것으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영역 9개 문항 중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과 관련된 소외 영역을 제외한 의사소통 3개 문항과 신뢰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역코딩하였다. 또래애착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의사소통 .796, 신뢰 .842, 전체 .891이었다(〈표 2〉 참조).

〈표 2〉 청소년 또래애착 검사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	문항수	신뢰도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3	.796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3	.842
			.891

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KCYPS의 진로정체감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공인규

(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역코딩하였다.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진로정체감a .842, 진로정체감b .765, 전체 .894이었다(〈표 3〉 참조).

〈표 3〉 진로정체감 검사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	문항수	신뢰도
진로 정체감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4	.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4	.765
			.894

4) 대학만족도

대학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CYPS의 대학생활 만족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역코딩하였다. 대학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육만족 .841, 지원만족 .634, 전체 .795였다(〈표 4〉 참조).

〈표 4〉 대학만족도 검사 문항 및 신뢰도

영역	문항	문항수	신뢰도
교육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및 교육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교수 및 강사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8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시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 학점교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634

3. 분석방법

청소년 부모공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 분석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였다. 또한 청소년 부모공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고 AMOS 23.0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2단계 분석 절차(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1단계에서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TLI, CFI, NFI, RMSEA 값 등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 후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청소년 부모공정양육과 또래애착 및 대학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 부모공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 측정변인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N=1,308)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 감독	-								
2 애정	.457**	-							
3 합리적 설명	.352**	.655**	-						
4 의사소통	.327**	.374**	.323**	-					
5 신뢰	.239**	.345**	.249**	.759**	-				
6 진로정체감a	.247**	.173**	.138**	.274**	.271**	-			
7 진로정체감b	.217**	.192**	.137**	.288**	.297**	.816**	-		
8 교육만족	.129**	.132**	.105**	.136**	.143**	.150**	.143**	-	
9 지원만족	.081**	.114**	.088**	.108**	.112**	.074**	.079**	.463**	-
평균	3.12	3.06	2.81	3.14	3.20	3.03	3.07	2.87	2.82
표준편차	.558	.537	.603	.471	.528	.646	.581	.544	.602
왜도	-.321	-.361	-.482	.209	-.179	-.234	.075	-.566	-.455
첨도	.529	.855	.823	.864	.660	-.366	-.812	1.404	.64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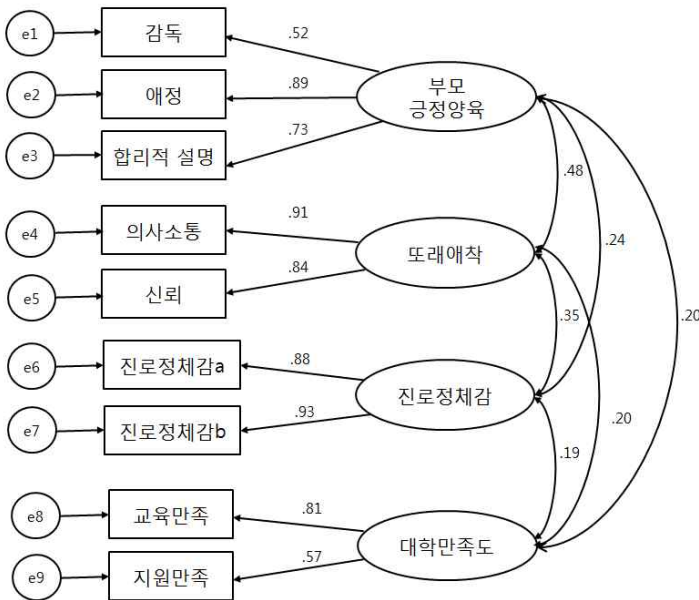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 설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았다. NFI .980, CFI .985, TLI .974, RMSEA .050으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측정모형 부합도 지수

부합도 지수	χ^2	df	NFI	CFI	TLI	RMSEA
측정값	88.56	21	.980	.985	.974	.050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19~.48로 나타났다고 요인부하량도 .52 이상의 부하량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변별타당도를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85 이하이고 수렴타당도를 위해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수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라는 기준(문수백, 2009)에 따라 측정모형은 충분한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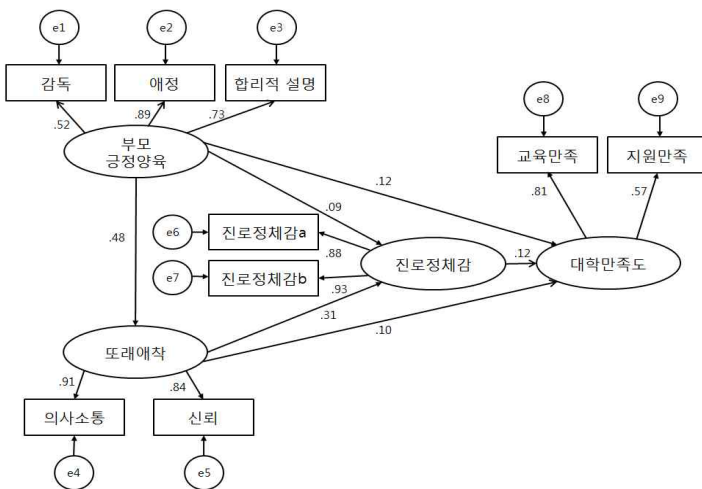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NFI .980, CFI .985, TLI .974, RMSEA .050으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모긍정양육→또래애착, 부모긍정양육→진로정체감, 또래애착→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대학만족도, 부모긍정양육→대학만족도, 또래애착→대학만족도의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 부모긍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 대학만족도의 관계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SE	t	p
부모긍정양육→또래애착	.703	.476	.056	12.472***	.000
부모긍정양육→진로정체감	.186	.095	.071	2.627**	.009
또래애착→진로정체감	.412	.310	.050	8.236***	.000
진로정체감→대학만족도	.096	.124	.029	3.317***	.000
부모긍정양육→대학만족도	.185	.121	.064	2.865**	.004
또래애착→대학만족도	.100	.097	.044	2.244*	.025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모형의 구체적인 구조계수 추정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4.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부모공정양육과 대학만족도, 또래애착과 대학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 부모공정양육과 대학만족도($\beta=.076, p=.001$), 그리고 또래애착과 대학만족도($\beta=.038, p=.003$)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변인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부모공정양육→또래애착	.703**	.000	.703**	.476**	.000	.476**
부모공정양육→진로정체감	.186*	.289**	.475**	.095*	.147**	.242**
부모공정양육→대학만족도	.185**	.116**	.300**	.121**	.076**	.197**
또래애착→진로정체감	.412**	.000	.412**	.310**	.000	.310**
또래애착→대학만족도	.100*	.039**	.139**	.097*	.038**	.135**
진로정체감→대학만족도	.096**	.000	.096**	.124**	.000	.124**

* $p < .05$, ** $p < .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부모공정양육, 또래애착,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청소년 부모공정양육과 또래애착 및 대학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공정양육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공정양육과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과 대학교 1학년의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사항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부모공정양육은 또래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부모공정양육과 또래애착은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기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관련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장인실, 장석진, 2012; Safdar & Zahrah, 2016)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만족도가 증가되며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과 대학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주 외(2018) 연구와 같은 맥

락이며 청소년기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들(강차연, 박경, 2001; 문은식, 2015;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Felsman & Blustein, 1999)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 부모·자녀관계나 또래관계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탐색하면서 진로에 대한 정체감도 형성해 간다. 부모와 친구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이자 진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원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부모가 보이는 관심, 애정, 인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가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자아정체감이나 진로 발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탐색을 하는 자녀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기술 훈련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시기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전념하는 시기임에도 안정적인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 형성과 대학 입학 후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나 부모가 학업만큼 교우 관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대학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대학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김인숙, 손민정, 박혜경, 2017; 허귀선, 1985; Smitina, 2010)과 일치한다.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 계획에 부합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부분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직업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성적 수준에만 의존하여 대학 진학을 결정한다. 이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과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전공을 변경하거나 편입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는 등 대학생생활에 부적응 상태를 보이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강승호, 2010; 남민우, 이해듬, 백은주, 2016).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자기탐색 및 진로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진로정체감은 청소년 부모긍정양육과 또래애착이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기 부모가 긍정적 양육 태도를 보여줄수록, 그리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잘 맺을수록 학생들은 진로정체감 형성을 잘 하게 되고 진로정체감 형성이 잘 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교육에 대하여 더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Super et al.(1996)에 따르면 14~24세는 진로발달에 있어 탐색기로 학교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대학 교육 적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박소영, 김지연, 김상희, 정단비, 2014; 신희경, 이종승, 2007)에서 강조한 것처럼 고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 진학 관련 상담, 대학 학과 소개, 직업 소개, 강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도 필요하지만 청소년기 진로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신의 가치관,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중등학교 시기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과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와 우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형성된 진로정체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를 결정한 후 대학에 입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대학 수준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정체감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또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등학교와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입학 후 적응 관련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과 직업 선택 및 준비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개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을 통해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중등학교 전체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을 통한 대학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로 중등학교 시기별 진로정체감 형성과 대학 생활 및 대학 졸업 후까지 보다 장기적인 시간 흐름에 따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대학만족도는 교육만족과 지원만족으로 측정되었으나 대학만족도는 교육만족과 지원만족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즉 교수자,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학교 문화에 대한 만족도 등 다각적으로 대학만족도를 측정하여 보다 폭넓은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연구가 가능하다.

셋째,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성 관계,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인간관계 등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 요인이 청소년 진로정체감과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관계를 포함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승호(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5-53.
- 강원덕, 안귀여루(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39-764.
- 강차연, 박경(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51-69.
- 고재성(2010).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개발역량과 관련 변인. **진로교육연구**, 23(1), 1-19.
- 고종민, 명향란, 안권순(2017). 청소년의 포래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91-514.
- 공인규(2008). Holland 진로탐색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권성애, 박용순, 송진영(2014). 고등학생의 포래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8, 123-146.
- 권수정, 박정령, 김정예(2017). 청소년의 포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3(2), 29-51.
- 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2018).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273-295.
- 김성경(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23-46.
- 김승보, 유한구, 장현진, 방혜진, 신선미(2014). **진로정보의 현장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성별 및 부모포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 김영숙, 조한익(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포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 관계. **교육심리연구**, 31(3), 529-561.
- 김은경, 김홍숙, 김순규(2013). 청소년의 포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8), 303-324.

- 김인숙, 손민정, 박혜경(2017).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자기조절,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2), 302-312.
-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김희자(2008). 부모애착, 부정적 자아평가, 친구관계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4), 107-127.
- 남민우, 이해듬, 백은주(2016).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4), 147-174.
- 노미나, 권연희(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4), 31-41.
-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149-177.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with AMOS17.0**. 서울: 학지사.
- 문은식(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박미려, 양은주(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민하, 문재우(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2), 131-152.
- 박소영, 김지연, 김상희, 정단비(2014). 고등학교 진로교육경험에 따른 대학 적응 차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7(3), 151-176.
- 박수복, 김희수(2018). 대학생생활만족이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261-275.
- 박연옥, 박수진, 허정(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103-124.
- 변해원(2017). 인공지능경망을 이용한 청소년의 또래애착 영향 요인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209-214.
- 서유란, 이상희(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송미령, 김성영(2012).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32, 65-89.

- 신희경, 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신희경, 이종승(2007). 내적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학문적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5(1), 71-100.
- 오보영, 이상희(2013).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자아존중감, 우울 및 대학적응의 차이: VISA 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6(1), 47-67.
- 오충광(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와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449-473.
- 유순규, 김은주(2016).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K-CESA 핵심역량,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9(2), 1-26.
- 윤영란(2009).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5(1), 91-106.
- 이경희, 윤미현(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상인(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이용택, 최재혁(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관계 및 부모와의진로관련대화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 이지원, 이기학(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 이현주(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이현주, 권수정(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0), 347-355.
- 이형실(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4), 109-119.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영애, 엄윤경(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7(4), 3-16.
- 장인실, 장석진(201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291-313.
- 정경아, 조지현(2015). 일 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학과선택 시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

- 응,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143-155.
- 정주영(2010).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진로교육 연구**, 23(1), 21-39.
- 정주영(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1), 53-83.
- 조영아, 정철영(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 채선화, 김진숙(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339-358.
- 최윤정, 김지은(2012).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의 관계: 다수준 분석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13(2), 81-106.
- 최인화(1998).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허귀선(1985). 여대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대학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총**, 1, 90-101.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 교육연구**, 17(3), 195-220.
- 황미경(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L. W. Hoffman, & M. L.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lustein, D. L. (2011). A relational theory of wor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1-17.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 Mahwah, NJ: Erlbaum.

- Charalampous, K., Demetriou, C., Tricha, L., Ioannou, M., Georgiou, S., Nikiforou, M., & Stavrinides, P. (2018). The effect of parental style on bullying and cyber bully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role of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64*, 109–123.
- Chung, Y. B. (200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commitment: Gender and ethnic differenc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8*(4), 277–284.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Engels, R., Dekovic, M., & Meeus, W. (2002). Parenting practices,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0*(1), 3–18.
- Eri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Inc.
-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 Garcia, P. R. J. M., Restubog, S. L. D., Toledano, L. S., Tolentino, L. R., & Rafferty, A. E. (2011). Differential moderating effects of student-and parent-rated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 22–33.
- Ginevra, M. C., Nota, L., & Ferrari, L. (2015).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1), 2–15.
- Holland, J. L., Dan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 Kenny, M., & Medvide, M. B. (2013). Relational influences on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329–356). New York, NY: Wiley.
- Laursen, B., Furman, W., & Mooney, K. S. (2006). Predi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worth from adolescent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networks: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perspec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52*(3), 572–600.

- MaGuire, K. D., & Weisz, J. R. (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Child Development, 53*(6), 1478-1484.
- Marcia, J. E. (1964). *Determination and construct validity of ego identity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Millings, A., Buck, R., Montgomery, A., Spears, M., & Stallad, P. (2012). School connectednes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35*(4), 1061-1067.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stubog, S. L. D., Florentino, A. R., & Garcia, P. R. J. M. (2010). The mediating role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d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support and persist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186-195.
- Safdar, S., & Zahrah, M. S. (2016). Impact of parenting styles on the intensity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Explor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2), 23-30.
- Smitina, A. (2010). The link between vocational identity, study choic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stud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5*, 1140-1145.
- Sovet, L., & Metz, A. J. (2014). Parent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French and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345-355.
- Stringer, K. J., & Kerpelman, J. L. (2010). Career ident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parental support, and work experience,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0*(3), 181-200.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Wilkinson, R. B. (2009). Best friend attachment versus peer attachment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ce, 33*(5), 709-717.

- * 논문접수 2018년 11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12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1월 26일 / 게재승인 2019년 3월 8일
- * 이현경: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선진화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welt1@hufs.ac.kr
- * 김정민: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및 교육대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k-okdol@hanmail.net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Parent Positive Parenting,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Satisfaction

Lee, HyunKyung*

Kim, JungMin**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parent positive parenting,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satisfaction,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ent positive parenting, peer attach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Based on the panel data of the KCYPS (Korean Child & Youth Panel Survey)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6th year data of the third yea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7th year data of the first year college students were used. A total of 1,308 data were analy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ootstrapping. As a result, the direct effect of parent positive parenting on peer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 effects of parent positive parenting on both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irect effects of peer attachment on both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satisfaction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direct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universit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parent positive parenting, peer attach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ore parent positive parenting experience, the higher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can be. It also implies that the more positive parenting experience and the higher level of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s, the higher level of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satisfaction can be. Moreover, the mor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parents, and the mo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eers of adolescence can form the career identity positively, and the students who enter the university with a well-formed career identity can have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in university education.

Key words: Adolescent Parent Positive Parenting,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University Satisfaction

* First author, Research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Yonsei University